지난 97년 추락한 KF-16 전투기 보상협상 타결

지난 97년 8월과 9월 잇따라 추락한 KF-16 전투기 2대에 대한 보상협상에서 미국 제작사가 우리 군에 전투기 엔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일 제작사인 플랫 앤드 휘트니(P&W)사와 최근 11개월간 9차례에 걸쳐 추락 전투기에 대한 보상협상을 벌여 최신엔진 PW-229 2대(1백20억여원)를 제공받고 향후 항공부품 공급시 할인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협상을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P&W는 또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1백20여대의 연료도관인 플랙스 호스를 모두 교체해주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F-16전투기는 그동안 전세계에서 2백40여대가 추락했으나 제작사의 보상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협상이 우리측에 유리하게 타결된 만큼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F-2 전투기에 항속거리 연장 공중급유구 장착

일본 방위청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치할 F-2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위한 급유구(給油口)를 장착, 항속 거리를 연장시킬 방침이다.

일본 방위청은 지상 공격이나 대함(對艦)공격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F-2 전투기를 처음으로 미국과 공동 개발, 각 기지에 최종적으로 130대(대당 117억엔)를 배치하되 우선 금년에 아오모리(青森)현 미사와(三澤)기지 등에 3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방위청은 F-2 전투기가 적 기지 공격을 위해 상대국에 침입할 경우 연료 소모가 많은 저공비행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급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청은 F-2 전투기의 배면에 급유구를 장착, 공중급유기의 급유관을 통해 부족한 연료를 공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F-2는 현재 항공자위대가 사용하고 있는 F-1을 대신하는 지원전투기로, 미국의 F-16 전투기를 기본으로 삼아 개발됐으며 작년에 시험중 주날개에 금이 가는 등 이상이 발견돼 시험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이 전투기는 요격용 전투기 F-15에 비해 대지(對地)공격 능력이 높고 행동반경은 약 800㎞에 이르고 있다. 규슈(九州) 북부기지 등에서 발진할 경우 한반도 상공에도 도달할 수 있으며 공중급유를 하게 되면 주변국가에서 작전행동도 가능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F-2가 전면 배치될 경우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지니는 본격적인 항공부대를 보유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해군형 라팔 양산기 처녀비행

프랑스의 해군형 라팔 양산1호기가 닷소사의 보르도 공장의 활주로에서 처녀비행에 성공했다. 같은 날 해군형 라팔 시제기는 프랑스의 핵추진항모인 샤를 드골호에서의 착함시험에 성공했다. 해군형 라팔 M 12대로 이뤄진 첫번째 비행대는 2001년경에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해군은 60대의 라팔 M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25대는 정부의 장기획득계획의 일환으로 주문된 상태이다.

C-27J 스파르탄 롤아웃

알레니아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한 C-27J 스파르탄 전술수송기의 1호기가 알레니아의 투린 카셀 공장에서 지난 7월 14일 롤아웃했다. 동 기체는 이전에 알레니아/아에리탈리아에서 제작한 G.222 수송기의 기체를 개조

해서 제작한 것이지만 2호기는 완전히 새로 제작한 기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3호기는 이탈리아 공군 소속의 G.222의 기체를 전환시킬 것으로 보인다. C-27J의 최초비행은 8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750시간의 시험비행을 통해서 내년말까지 민간 형식증명을 취득하고 2001년 초까지 군용 형식증명을 따낼 계획이다. C-27J의 제작사들은 현재 대대적인 마케팅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10대의 확정수요와 5대의 옵션 수요가 있는 호주와 15대의 수송기 수요가 있는 그리스가 주공략대상이 되고 있다.

THAAD, 마침내 요격 성공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중인 요격방어(THAAD) 미사일이 지난 6월 10일 애리조나주 화이트샌드 사격장에서 실시된 요격시험에서 스커드 미사일의 모의표적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 지금까지 여섯번이나 요격에 실패해 물의를 빚었던 THAAD는 진입해 오는 미사일 탄두를 고도 60마일 바로 아래에서 요격했으며 탄두와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는 초속 약 1마일이었다. 현재는 이번 요격시험에 대한 분석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3회의 요격시험을 더 실시할 예정이다. 이 3회의 요격시험에서 2회 이상 성공할 경우 THAAD는 기술 및 제작개발(EMD)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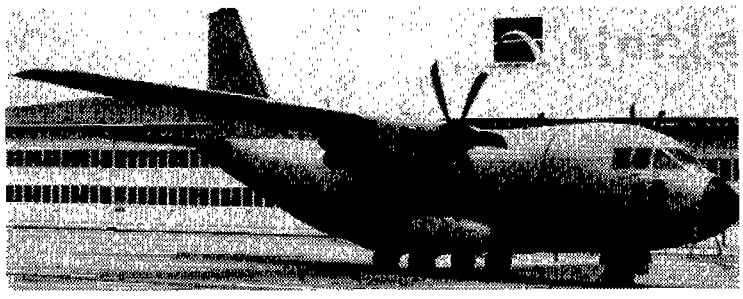
이탈리아-러시아, YAK-130 제작에 합의

이탈리아의 아에로마키사는 2003년까지 러시아의 고등훈련기인 YAK-130을 서방기준에 맞춰 형식증명을 획득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최근 이탈리아와 러시아간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작사업의 지분은 아에로마키가 50%, 러시아의 야코블레프 설계국이 25%, 소콜 제작창이 25%로 분배될 예정인데 가장 큰 관심사는 YAK/AEM-130으로 불릴 이 항공기의 개발을 끝낼 만큼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다.

YAK/AEM-130은 현재 슬로바키아의 경공격기 선정계획의 강력한 후보기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항공기의 엔진이 슬로바키아제 포바즈스케-스트로야르네 DV-2 엔진이라는 것도 큰 잇점으로 꼽히고 있다. YAK-130의 원형기는 윙렛을 제거하는 등의 공기역학적인 개조를 거친 모습으로 SIAD99에 선을 보였다. 원형기에 장착했던 윙렛은 러시아 공군의 낮은 진입속도 요구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밖에 달라진 점으로는 높은 받음각에서의 조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날개 앞전에 수직면을 도입한 것과 롤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날개 앞전에 툽니모양의 소투쓰를 만든 점 등이 있다.



알레니아의 푸린 카셀 공장에서 롤 아웃한 C-27J 스파르탄

공기 역학적 개선으로 조종성이 더욱 좋아진 YAK-130